

지역 소식

정읍시립도서관, 여름방학기간 독서교실 참가 학생 모집

정읍시립도서관이 여름방학기간 독서교실을 운영한다.

중앙도서관은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저학년(1~3학년)교실(25명)을 8월 7일부터 11일까지 고학년(4~6학년)교실(25명)을 운영한다.

신태인도서관은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전 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여름독서교실 주제는 '미움 튼튼! 생각쏙쏙! 시원한 초등 여름독서교실'이다.

중앙도서관 저학년은 도서관에서 만난 화가 이종섭(이하 이종섭), 고학년은 '도서관에서 만난 오르세 미술관 명화'(이하 오스세 명화), 신태인도서관은 '조선 전기를 이끈 인물들이(하 조선전기 인물)'이라는 소주제로 진행된다.

수료 후 우수 수료자에게는 정읍시장상, 국립아린이청소년도서관장상도 수여 예정이다.

참여 희망자는 7월 3일부터 각 도서관을 방문 접수하면 되는데, 선착순 모집이다.

접수장소는 중앙도서관은 1층 안내데스크, 신태인도서관은 1층 자료실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도서관은 539-6435, 신태인도서관은 539-6442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농기센터 식품가공기능사 교육 수강생 20명 자격증 취득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한 식품가공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 전문교육 수강 20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기술센터는 2017년 정기기능사 시험에 55명의 수강생이 응시해 1차 필기시험에서 24명이 합격했고, 23명이 2차 실기시험에 응시, 최종적으로 20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기술센터는 식품 가공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농산물의 새로운 소득 활로를 찾기 위해 '식품가공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2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 등 총 14회에 걸쳐 진행했다.

농산물 가공사업 분야 전문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았던 가공 사업장 운영자나 청년을 희망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교육에 참여했다.

이번에 자격증을 취득한 고은주씨는 "기초이론부터 곡물·과일·채소류 등 다양한 가공방법과 식품검사에 이르기까지 전문지식을 습득한데다 자격증까지 취득한 좋은 기회였다"고 밝혔다.

기술센터는 지난 2013년부터 교육을 추진해 이번 학기까지 모두 총 63명의 식품가공기능사를 배출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길 위의 인문학

강연·답사 프로그램 운영

정읍기적의도서관, 7월 24일까지 4차시 14회 걸쳐 운영

정읍기적의도서관(이하 기적의도서관)이 '길 위의 인문학' 강연과 답사를 진행하고 있다.

길 위의 인문학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한 2017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에 선정돼 운영 중인 사업이다.

기적의 도서관은 "총사업비 1000만 원 전액을 지원받아 '접속이 아닌 접촉을 이끄는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자연과의 접촉, 나 자신과의 접촉, 그리고 정읍역사와의 접촉을 위한 강의와 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시작된 프로그램은 7월 24일까지 모두 4차시 14회에 걸쳐 운영된다.

1차시는 '펜과 접촉하다'는 주제로 고등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변화하는 세계와 미래를 준비하는 나의 미래 쓰기'에 관한 강의와 펜, 구, 대전 국립과학관 탐방 등이 진행됐다.

2차시의 주제는 '자연과 접촉하다'이다. 첫 프로그램은 지난 17일 진행됐다.

3차시는 7월 5일 저녁과 8일에 진행된다.



된다. 주제는 '자연과 하나 된 정읍역사 인물과 장소와 접촉하다'이다.

김재영 정읍역사문화연구소장과 함께 정읍의 역사와 발전 과정에서 자연과 하나 된 의미 있는 인물과 장소의 밤자취를 따라간다.

4차시는 '자연을 담은 건축과 접촉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7월 15일과 22일 정읍시립미술관 이홍재 관장이 진행한다.

기적의 도서관은 특히 모든 프로그

램을 마치고 24일에는 후속모임도 가질 계획이다.

이 지리를 통해 길 위의 인문학을 통해 보고, 듣고, 생각한 것들을 서로 나누며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는 취지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전화, 방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기적의도서관(063-539-645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대한민국 영재 1호 푸름이 아빠' 작가 최희수씨

28일 정읍시민 대상 특별 강연

'대한민국 영재 1호 푸름이 아빠'로 유명한 작가 최희수 씨가 정읍시민을 대상으로 특강을 갖는다.



최 작가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시청 5층 회의실에서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는 법'이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이 자리에서 최 작가는 자녀를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독서를 통해 지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루는 행복한 영재로 키워 낸 교육철학과 방법을 들려줄 예정이다.

최 작가는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및 동(同)대학원 환경대학원을 졸업했다.

그는 1000권이 넘는 육아서

와 심리서를 읽고 모든 아이는 영

재로 태어나는 믿음을 갖게 됐다.

이 믿음에 기반해 빼빼로는 사랑과

책, 자연을 통해 지성과 감성이 조

화를 이룬 두 아이(푸름이, 초록이)를 키워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수천 회의 강연과 육아상담에 참여했다.

이때 만난 부모들의 생생한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최대 육아 교육 정보 사이트인 푸름이닷컴을 개설했다. 현재는 푸름이 닷컴을 통해 '푸름이 교육법'을 널리 알리고 있다.

저서로 '빼빼로는 사랑이 행복한 영재를 만든다', '푸름이빠의 아이 내면의 힘을 키우는 물엄마로서', '사랑하는 아이에게 화를 내지 않으면' 등이 있다.

한편 시민행복 특별강좌는 시가

시민들의 지식 욕구를 충족시키고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강좌다.

올해 강좌는 11월까지 매월 미지

막 수요일(무료)로 실시된다.

7월에는 개그작가 1세대로 통하는 김재화씨가 강사로 나설 예정이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영농철 농가 일손돕기 봉사 줄이어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비쁜 영농철 무더위에 일손부족, 가뭄까지 겹쳐 어려움이 큰 농가를 찾아 일손을 보내고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하며 연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군 차지행정과 직원들은 20일 부안면 소재 1320㎡ 복분자 농가에서, 민생경제과 직원들은 고수면 부곡리 1,500㎡ 복분자 농가를 찾아 수확을 도왔다.

농업진흥과에서도 공유면 소재 최금덕 씨 농가를 찾아 오디 수확에 힘을 보탰으며 기획예산실은 고창읍 월산리 오디 농가를 찾아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동참했다.

재무과는 대산면 소재 복분자 재배 농가를 찾아 일손부족으로 힘겨워하

고 있는 농가에 일손을 더하고 애로

사항도 청취하며 현장행정을 펼쳤다.

대신면은 용두마을 복분자 농가를 찾았으며 성송면은 호동마을 복분자 농가에, 고수면은 증산리 오디 농가를 찾아 수확에 참여했다.

일손돕기에 참여한 직원들은 필요한 작업도구와 간식 등을 직접 준비해 농가의 부담을 덜었다.

농가들은 '복분자와 오디는 기계화가 어렵고 일시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확철에는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이 크다'며 '날씨도 무덥고 업무에도 비쁠 텐데 공무원들이 작업에 힘을 보태 주어 큰 힘이 됐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 대학생 사회복지시설 일자리 참여자 모집

고창군이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해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문화센터 등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할 대학생 참여자 15명을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대학생들에게 사회경험과 학비미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되는 이 사업은 각 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운영 등 업무 보조를 맡

게 된다. 참여자들은 고창군에 주소를 둔 대학교 재학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나 그 자녀 등이 해당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서와 재학증명서, 기타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고창군청 민생경제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고창=김영식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Cheongwadae Manjaju

부안군

Chungju Manjaju

</div